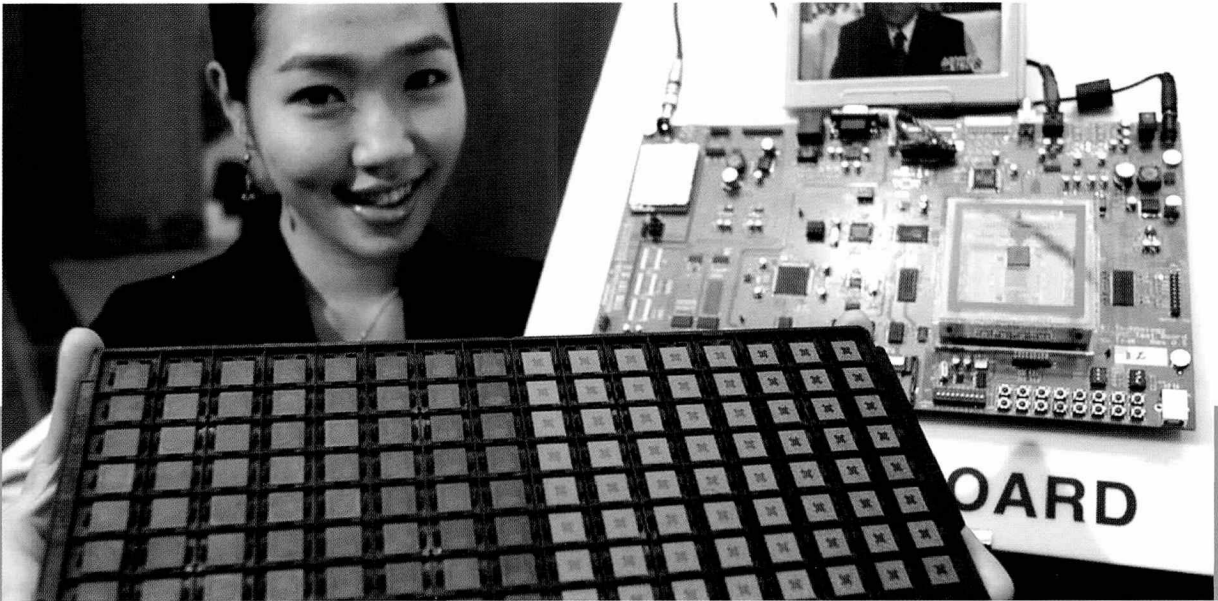


한국의 퀄컴을 꿈꾸는 기업 씨엔에스테크놀로지



인터넷 영상전화기와 멀티미디어 칩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꿈꾸는 곳이 있다. 바로 씨엔에스테크놀로지(대표 서승모 · www.cnstec.com.이하 씨엔에스)다. 씨엔에스는 CDMA 모뎀칩 원천기술로 엄청난 로열티를 거둬들이고 있는 미국의 퀄컴 사처럼 영상칩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세계 시장을 향해 비상한 나래를 펴고 있는 씨엔에스를 소개한다.

글 | 조계원 기자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실어 나르는 BcN 서비스와 이동중에 방송을 즐길 수 있는 DMB 서비스가 세계적인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씨엔에스는 설립 이후 10여년간 방송통신과 멀티미디어 솔루션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쌓아왔다. 이러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괄목 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BcN 시범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KT의 '옥타브 컨소시엄'에 이어, SK텔레콤 '유비넷 컨소시엄'의 영상 단말기 개발회사로 선정되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의 휴대폰 및 차량·휴대단말기 업체들과 지상파 DMB용 AV칩의 대규모 공급계약이 예정되어 있다. 바야흐로 씨엔에스테크놀로지의 전성기가 도래하고 있다.

원천기술이 바로 경쟁력

씨엔에스는 멀티미디어 영상처리칩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제 특허를 포함해 무려 190건의 국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씨엔에스의 가장 큰 경쟁무기다. 특히 미, 일, 유럽 등 해외시장에 44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해 세계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씨엔에스가 보유한 특허건수는 코스닥 등록 기업 전체 특허건수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음성 및 영상처리 등 멀티미디어 신호처리 및 디지털방송 분야에서 취득한 특허여서 더욱 가치가 높다.

이처럼 많은 특허를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 중심의 경영전략 덕분이다. 실제 씨엔에스는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 인원의 62%를 차지하는 R&D 회사다. 창립 이래 매년 15건, 매월 1건 이상씩 특허를 출원한 셈이다. 씨엔에스는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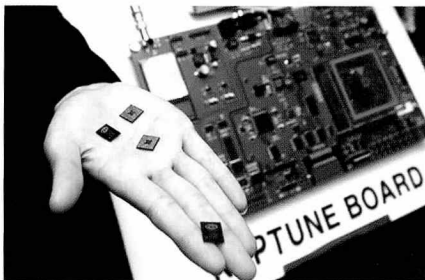
도 매년 매출액 대비 3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시스템 등 영상처리 분야에 약 6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만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념에서 나온 결과다.

세상을 놀라게 한 넵튠칩과 영상전화기

씨엔에스의 기술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DMB 전용 멀티미디어 칩인 '넵튠' 과 인터넷 기반의 고화질 인터넷 영상전화기다. '넵튠' 칩은 멀티미디어 영상과 음성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나의 칩에 집적시켜 위성 및 지상파 DMB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해주는 칩이다. 넵튠 칩을 탑재한 단말기는 고속도로에서 150킬로미터로 달려도 지상파 DMB 방송을 끊김없이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다. 최근 휴대폰 제조업체는 물론 카네비게이션 업체와 DMB 수신단말기 업체로부터 넵튠 칩에 대한 구매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씨엔에스의 영상전화기는 화상전화는 물론 이메일·단문 메시지 전송, 화상회의나 통역 서비스, 어학교육, 원격검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놀라운 제품이다.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 컨소시엄으로부터 이미 납품을 의뢰받았다. 인터넷 영상전화기는 국내는 물론 중국·일본·유럽 등으로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 해외에서 20만원대 보급형 제품에 대한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중국·영국·프랑스 등 국내외의 기간 통신사업자들이 오는 2010년까지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세계적으로 큰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4전5기의 끈기와 열정

기술 개발에 매달리는 기업치고 순탄한 길을 걷는 경우는 드



씨엔에스가 개발한 넵튠 칩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인터넷 영상전화기

물다. 씨엔에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초창기에 뼈빠용 무선통신 칩을 개발했지만 시장이 바로 휴대폰으로 넘어가면서 헛스윙을 했다. 1998년에는 하나로통신과 W-CDMA 방식의 모뎀 칩을 개발했지만 하나로측이 사업전략을 수정하는 바람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막대한 연구개발비만 날리고 무선통신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씨엔에스는 마지막으로 영상전화기 사업에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영상전화기 시장은 생각처럼 쉽게 열리지 않았다. 제품은 좋았지만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이다. 게다가 납품처인 통신업체들로부터는 가격인하 압박이 시달렸다. 결국 1년간의 단가절감에 매달린 끝에 올해 20만원대 제품을 선보였고, 1~2년 안에는 10만원대로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전

씨엔에스가 개발한 제품들은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는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차이나텔레콤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네트워크(NGN) 구축사업에 영상전화기 우선 공급회사로 선정돼 현재 중국 내 각 지역에서 제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시장은 히타찌사와 독점공급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고 최근 미래통신과 지난해에 이어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씨엔에스는 올해 매출 358억원, 영업이익 35억원을 목표로 잡았다. 영상전화 칩 솔루션은 약 22만개를 공급해 17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DMB 칩 솔루션은 약 40만대분을 공급해 7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부문인 주문형반도체(ASIC) 사업에서도 115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씨엔에스를 이끌어온 서승모 사장

그동안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로지 기술개발에 정진해 온 씨엔에스의 흑자 전환은 사필귀정이다. 올해 적자의 터널을 벗어나는 씨엔에스테크놀로지의 힘찬 비상이 기대된다. [K]